“문화도시 광주답게 다양한 영화 제작환경 조성을”

정읍 실버영화제 최우수상 ‘엄마의 편지’ 제작 광주영상미디어클럽

60~70대 100여명으로 구성
2012년 법인 설립 후 본격 활동
기획·촬영·편집 모두 스스로
매년 노인 주제로 영화 만들어

“문화도시 광주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영화를 제작할 여건이 열악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많은 영화인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광주영상미디어클럽(이사장 강홍길)이 제작한 단편영화 ‘엄마의 편지’(감독 이체)가 최근 열린 제11회 정읍 전국실버영화제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엄마의 편지’ 주인공은 보성에 사는 80대 할머니다. 외항선원인 아들 김희진씨의 편지를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오지않는 편지. 글을 모르면서도 직접 편지를 쓰기 위해 이곳저곳 도움을 청하게 된다.

10여 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기 힘들었던 할머니. 그는 조카손자가 대신 써준 편지를 아들이 좋아했던 귤과 함께 바다로 떠나보낸다. 너무도 투박하고 담담한 연출이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애잔함이 진하게 묻어나온다.

주인공을 맡은 이춘자(78·보성군) 할머니는 전문 배우가 아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노인이다. 오히려 그의 꾸미지 않은 순수한 연기가 더 큰 감동을 전해준다.

‘엄마의 편지’는 ‘실버, 청춘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총 58편의 작품이 출품된 이번 영화제에서 단연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사)광주영상미디어클럽은 정년퇴직 한 60~70대 노인 100여 명으로 꾸려진 영화제작 단체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영상제작 교육을 받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던 이들은 지난 2012년 법인을 설립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영화제작에는 클럽 회원 중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두 이들의 노력으로진행됐다. 전문가 도움을 받은 건 동시녹음뿐이다.

이들은 매년 여름이면 워크숍을 열고 영화를 제작했다. 2012년 ‘무등산 아리랑’을 시작으로 2013년 ‘늘 푸른 인생’, 2014년 ‘가화만사성’, 지난해 ‘석양의 멜로’ 등 매년 노인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오고 있다.

“노인의 삶을 노인인 우리가 직접 말하고 그 진정성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야죠.”

회원들은 ‘엄마의 편지’를 국제영화제에 출품할 생각이다. 서금례(여·79)씨가 직접 번역을 맡아 영어자막을 넣는 작업도 마친 상태다. 이달 중으로 제작과정을 담은 메이킹필름 ‘노인을 위한 영화는 있다’ 시사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는 게 회원들의 설명이다.

(사)광주영상미디어클럽 회원들이 제11회 정읍 전국실버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강홍길 이사장은 “영화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시사회를 열기 위한 극장 대관료까지 매번 모두 회원들의 힘으로 진행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화에는 투입된 제작비만도 500만원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제작지원금은 광주문화재단에서 받은 300만원이 전부였다. 은퇴한 시니어들에게 여간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강 이사장은 “2013년과 2014년 진행된 ‘에버그린영화제’도 예산부족으로 중단돼 안타까울 뿐”이라며 “문화도시답게 광주에서도 다양한 영화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김치 대명사 김호옥씨 ‘통배추 김치명인’

광주김치의 대명사로 알려진 김호옥(여·65·전북식당)씨가 최근 ‘사단법인 대한민국 명인회’(회장 윤상호)의 ‘통배추 김치 명인’으로 선정됐다.

김 명인은 광주김치 홍보를 위해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미국에서 김치 담그기를 시연, 호평을 받았으며 ▲ 2004년 서울엑스포 김치축제 대상 ▲2005년 광주 김치대축제 대통령상 ▲2013년 한국외식산업 김치경영 브랜드 김치장인 대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대한명인’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358개 분야, 358명이 선정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와 교류, 소통하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31사단 헌병대, 헌혈증 154매 기증

육군 제31보병사단 헌병대 장병들은 올해 1월 ‘사랑의 헌혈릴레이’를 시작해 헌혈증 154매를 모아 지난 11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본부에 기증했다.

‘사랑의 헌혈 릴레이’는 참여를 희망하는 장병들에 한해 이전 헌혈자가 다음 헌혈자를 지정해 헌혈을 이어나가는 방식이다.

이번 행사를 제안한 이재우 대위는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봉사”라며 “장병들이 헌혈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행정보고서 작성 요령·사례 등 공직 노하우 소개

김영선 전 전남도 부지사 책 내

김영선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보고서 쓰는 방법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성공하는 공직자의 행정보고서 쓰기’는 김 행정부지사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실무현장에서 경험하고 터득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다. 책은 보고서 작성 준비, 보고서 작성 실제, 보고서 종류별 작성요령 등 모두 3장으로 구성됐 있다.

김 부지사가 책을 내게 된 것은 행정보고서 작성에 관한 책자가 거의 없는 현실을 접하면서다. 많은 공직자들이 보고서 작성에 익숙해지기까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등 행정 낭비가 만만치 않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적지 않았다.

책에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수록돼 있다. 또한 보고서 종류별 작성 요령과 작성 사례가 자세히 소개돼 있어, 실무현장에서 직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직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는 보고서를 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시책과 사업이 갖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책과 사업의 제목, 사업기간, 사업비 등 제원 중심으로 작성하면 전체적인 의미와 목적 등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손명희 광주시 주무관 ‘지방행정 달인’ 선정

광주시 참여혁신단 손명희 주무관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됐다.

손 주무관은 광주시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방행정 달인에 선정됐다. 손씨는 협업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마을공동체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협업의 달인’에 뽑혔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전국 36만명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 열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최고의 공무원을 뽑아 시상하는 상으로, 개인 실적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등 심층검증을 통해 올해 13명이 선정됐다.

손 주무관은 2014년부터 마을정책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관협업, 기관간 협업, 조직내 부서간 협업 등 다양한 협업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 마을 주차문제를 민관 협업을 통해 해결한 정책모델을 만들어 2015년에는 행자부 주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웃 간 생활갈등을 해결하는 ‘광주마을분쟁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했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또한 시교육청과 협업을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손명희 주무관은 “혁신마인드를 내세운 참여혁신단의 조직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많은 협업 상대자들과 일을 나누어 함께 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강호철·김희경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EnM 학술상’

강호철 교수

김희경 교수

화순전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강호철·김희경 교수가 최근 ‘2016 대한내분비학회 학연산 및 추계심포지엄’에서 ‘EnM 학술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항갑상선제제 사용시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인 ‘무과립증’의 발병 특징에 대해 분석했다. 국내의 관련논문 중 4곳의 3차 의료기관 자료 등 가장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 국내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nM 학술상’은 지난 1년간 대한내분비학회 학회지(Endocrinology and Metabolism)에 실린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해 시상한다.

김희경 교수는 이날 ‘MSD 신진연구자상’도 수상했다. 화순전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우수 연제상’ 등 최근 3년연속 학회 수상을 통해 탄탄한 연구역량을 선보이고 있다.

대한내분비학회는 지난 1982년 창립됐다. 신경내분비, 갑상선, 당뇨, 부신, 생식, 비만 등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 융합을 통한 학회 활동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내분비 전문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전남농민회, 철도노조에 쌀 전달

광주·전남농민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1일 철도파업을 응원하기 위해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순천지역에 쌀 610포를 전달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조선대치과병원, QI경진대회

조선대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은 최근 조선대 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8회 QI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조선대치과병원 제공〉

호남대, 영·호남 관광전문가 워크숍

호남대 한국형복합리조트인재양성사업단(단장 김진강)은 최근 부안군 모항 해나루호텔에서 대구가톨릭대, 부산 동명대와 ‘영·호남 예비관광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호남대 제공〉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홍상표
◆광주지방국세청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정학관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양동희(전 법무부 교정국 광주교도소 근무)·김경순(전 전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씨 차남 요셉(목포해양경비안전서)군 정성숙씨 장녀 경화(여수종합병원 간호사)양=19일(토) 오전 11시 30분 나주시 영산로 나주교회 본당 1층, 문의 010-4276-1864.

▲임채수씨 삼남 용섭군 조삼상(전 전남도 보건과장·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장)·문영미씨 차녀 정민양=20일(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현동742 파티오나인 5층 채플홀, 문의 010-7767-8999.

▲김동복(NH농협은행 동광주지점장)·문영숙(담양농협 상무)씨 장남 경도군 김광호·김항옥씨 장녀 규리양=26일(토)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담양 피로연=18일(금) 오후 5시 백제회관.

종친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청년회장 이철환) 월례회=15일(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향우회

▲재광 나주향우회(회장 김보곤) 이사회 및 사무실 개소식=25일(금) 광주시 서구 매월2로53(공구 8동 204호) 문의 062-603-2795.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이발기술 무료 전수=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지체, 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술미료·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베이비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부음

▲권순호(광주 동림사랑의교회 담임목사)씨 별세 명지씨 부친상 정미라(광주시 문화산업과)씨 남편상 이기백(삼성전자)씨 빙부상=발인 14일(월) 광주시 서구 한국병원장례식장 1호실 010-6627-8869.

▲김기옥씨 별세 행수·정수·홍수·흔주·흔좌·훈경씨 부친상 최은경·이영란씨 시부상 한영옥·송영배·노중현씨 빙부상=발인 14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김동휘씨 별세 대운·범진(광주평화방송 기자)씨 부친상 이루미씨 시부상=발인 15일(화) 광주시 북구 그린장례식장 제9분향소 062-250-445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김한주 님(남/60세)
子 : 김응휘 女/壻 : 김명선/이정길
孫 : 이수현 未亡人 : 정춘자
• 발 인 : 11월 14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1

301호 故김동신 님(남/81세)
子/子婦 : 김 영/이리라
女/壻 : 김을리/정영진, 연희/정승래, 유진/한정구
• 발 인 : 11월 15일
• 장 지 : 동면양림교회묘역 • 연락처 : 227-4382

401호 故정주옥 님(여/82세)
子/子婦 : 최인광/강윤지, 경배, 인환/안은선
女/壻 : 최경애, 경선/손백승, 경미/이승호
• 발 인 : 11월 14일
• 장 지 : 목포 추모공원 • 연락처 : 227-4383

402호 故이영숙 님(여/83세)
子/子婦 : 채선기/정복란, 원기/양애리
女/壻 : 채경자/박일경, 경희/김용선
• 발 인 : 11월 15일
• 장 지 : 임실호국원 • 연락처 : 227-4383

101호 故이을래 님(여/87세)
子/子婦 : 박형진/권영숙
• 발 인 : 11월 15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000

孝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대표이사 구제길
문 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